

제1호의안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정관 변경(안)

제안일: 2022. 5. 23(제2차이사회)

1. 개정 취지

본 조합이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으로서 도소매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문구유통업전체를 포함하는 조합명칭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조합원의 자격(제9조)

-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문구도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645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9 기타가정용품 도매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음의 업종추가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①항추가)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②항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4 가정용품 도매업(소분류)

4645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도매업(세분류)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세세분류)-기존

47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소분류)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세분류)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소매업(세세분류)-①항추가

47640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세세분류)-②항추가

1.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p>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u>문구도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645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u></p> <p>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u>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9 기타가정용품 도매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u>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u>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645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761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u></p> <p>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u>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9 기타가정용품 도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u>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생략)</p>	<p>①문구 소매 업종 추가</p> <p>②장난 감소매 업종 추가</p>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신청 심의(안)

1. 심의주문

우리조합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신청과 관련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한다.

2. 제안사유

아성다이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상대로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 문구소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2022.07.31.부로 만료 ※연장불가
-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요 및 신청요령
-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사례
-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 진행절차 및 체크사항

1) 문구소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2022.07.31.부로 만료 ***연장불가**

- 권고사항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18개 품목 묶음단위 판매
 - ①교과노트(전과목) ②종합장 ③연습장 ④일반연필 ⑤문구용품
 - ⑥지우개 ⑦유성매직 ⑧네임펜 ⑨일반색종이 ⑩스케치북
 - ⑪알림장 ⑫일기장 ⑬받아쓰기 ⑭형광펜 ⑮색연필세트
 - ⑯사인펜세트 ⑰물감 ⑱크레파스(크레용 포함)
- ** 단 ⑦ ⑧ ⑭ 품목은 단색, 날개 판매 가능
- 신학기 할인행사(2월, 8월)중단
-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 권고사항일 뿐 법적효력 없음**
- (만료 후 문구시장 대기업 진입 수월해짐)**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요 및 신청요령

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2021.02.05. 시행)

-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
- 법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 및 진입 제한 가능해짐
- 오프라인 매장만 해당

나) 문구소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요령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①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 ②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명

- ③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3)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적용사례

업종(지정일)	승인사항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19.10.18.)	① 신규출점 년 1개만 가능 ② 출점일로부터 학습참고서는 36개월간 판매제한 ③ 융·복합형 서점(서적비중 50% 이하 등)은 적용 예외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 (2019.11.20.)	① 대기업 신규 거래처 신규계약은 년 1개씩만 허용 ② 지정일 기준 운영대 수 총량범위 내에서 이전·변경 설치 허용, 총량제한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유예
LPG연료 소매업 (2019.11.20.)	① 가정용 및 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LPG연료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것에 한함 ※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은 적용 제외 ② LPG산업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후승인 허용 등 예외 인정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020.01.01.)	① 수출용 두부와 국산콩 가공 두부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② 소형 포장두부(1kg 이하) 전면 허용 ③ 대형 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장류 제조업 (2020.01.01.)	① 수출제품과 혼합장·소스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② 소형제품(8kg·8L 미만) 전면 허용 ③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면류 제조업 (2021.01.01.)	① 국수간편식(OEM)하는 경우 허용 ② 중소기업 OEM 통한 국수 출하량 130% 이내 허용 ③ 동일법인(가맹점 등)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생산·판매 하는 경우 허용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021.09.16.)	① 중소기업 OEM을 통한 생산·판매 경우 허용 ② 출하량 110% 이내인 경우 허용 ③ 국내산 쌀·밀로만 생산·판매 허용 ④ 동일법인(가맹점 등)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생산·판매 하는 경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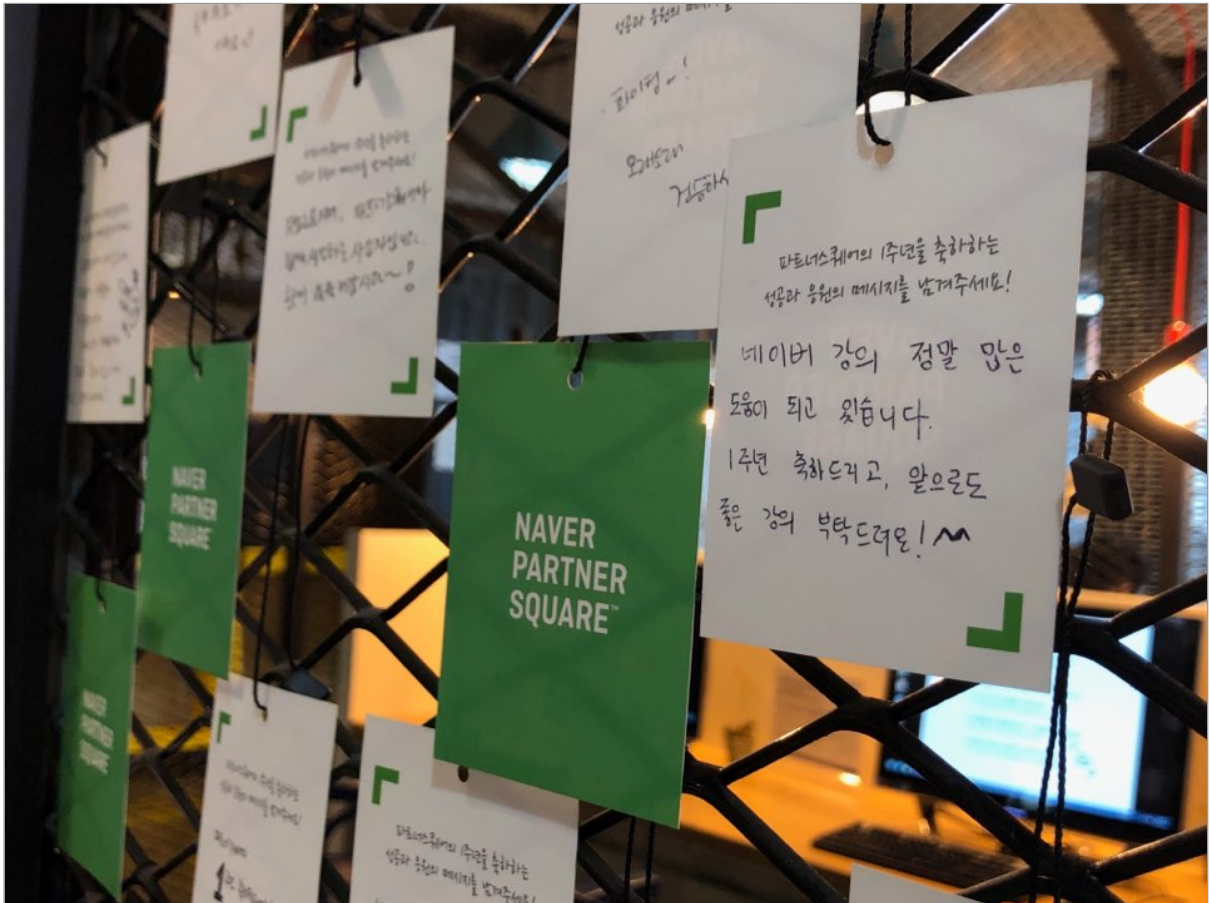
4)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신청 이후 진행절차 및 체크사항

		사 례	예정일
I 생계형적합업종신청및 실태조사	소상공인 생계형적합 업종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7.31.부로 중소기업적합업종 만료됨에 따라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자료제출 및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출 및 신청 	7/25~29
	동반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조합추천 문구점 실태조사 	22.09~ 23.02월
III 간담회,좌담회,국회토론회	전국문구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문구점 생계형적합업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서적조합연합회 간담회(별첨1) 22.11월
	소상공인 문구점 보호 및 육성 방안 좌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피해사례 및 소상공인 문구점 보호 및 육성 방안 좌담회 개최 	· 서적조합연합회 좌담회(별첨2) 23.02월
	대기업 피해사례 국회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피해사례 국회토론회 개최 	· 서적조합연합회 토론회(별첨3) 23.05월
IV 기타 이행 사항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관련 인터뷰 · 문구점 피해사례 · 생계형적합업종 필요성 사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조합연합회 인터뷰(별첨4) 22.08~23.07월 · 서적조합연합회 사설(별첨5)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 체결 (생계형적합업종 확정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조합연합회 업무협약 보도자료(별첨6) 22.08~23.07월

'대기업'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 까닭

[현장]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부작용 대비, 600만 소상공인 입김을 대변하겠다"

19.04.19 20:38 | 최종 업데이트 19.04.19 20:48 | 류승연(syryou)



▲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내부 사진들

© 류승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아래 중기부) 장관이 19일 포털업계 대기업 네이버를 찾았다. 이곳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취임한 후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이 직원들에게 직접 제안했던 독서 토론회에 필요한 책도 상생을 위해 지역 서점에서 사오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참석한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을 향해 "요즘 서점 사정이 좋지 않은 걸로 알

고 있다"며 "독서토론회에 필요한 책 중 절반 가량을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연락처 필요해"

박 장관은 '4차 산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동시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카카오톡이 처음 생겼을 때 (카카오톡쪽으로부터) '수익성으로 인해 회사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카카오가) 지금은 신기루가 된 것처럼, 변화하는 시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상권 전환기인 이 때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정부가 어떻게 4차 산업을 연락처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려는 기업들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박 장관은 "네이버의 경제관은 '네이버가 가진 일부를 내려놓고 소상공인과 함께 채워가자'는 것"이라면서 "오늘 파트너 스퀘어를 살펴보니 촬영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네이버가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등 윈윈(WIN-WIN)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내부 사진들

© 류승연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파트너 스퀘어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화장품 콘텐츠

촬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앞에서 발걸음도 멈췄다. 네이버쪽 관계자는 박 장관에게 해당 스튜디오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네이버가 만든 '상생형' 공간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장소 및 스튜디오로 활용되고 있다.

박영선 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모델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언급하기도

이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소상공인 간담회 장소로 선택한 것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취임한 후 출근 '상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11일의 당진 전통시장 방문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이 시장을 이마트(노브랜드)와 지역 상인이 공존하는 '우수 사례'로 꼽으며,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박영선 장관의 대외 일정에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테마가 있다"며 "앞으로의 정책적 행보 역시 한동안 상생과 공존 측면에서 지역 선정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박영선 장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장관님과 오랜 시간동안 현장에서 울고 웃었다"며 "소상공인 전체가 인정하는 분"이라며 친밀함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소상공인 기본법 등에 대해 차례대로 언급했다. 이 중 최 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 최 회장은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회사) 규모별로 나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저소득층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갖고 있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해 더 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600만 소상공인들의 입김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9일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 OhmyNews

OhmyNews

교보문고 도매行... 시장 고사 '걱정' 유통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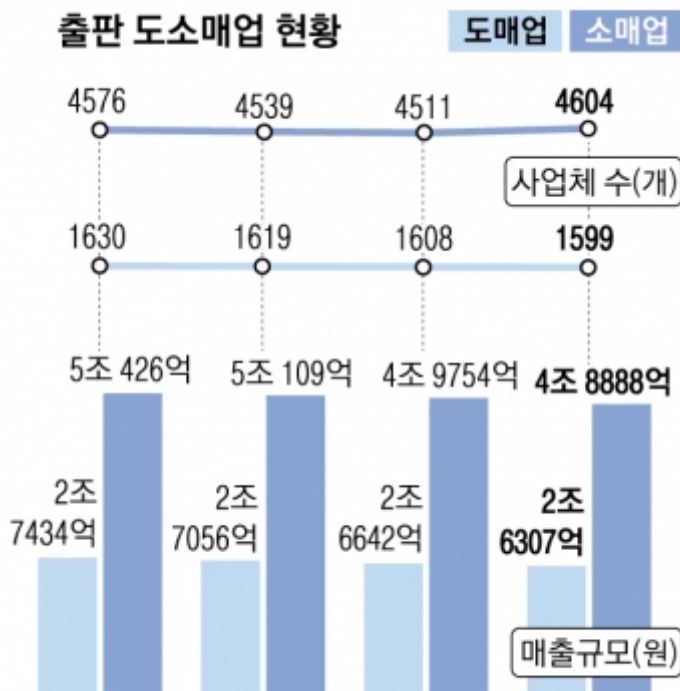
입력 : 2020-04-27 23:34 | 수정 : 2020-04-28 09:49



▲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교보문고 도매 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출판계와 도서유통계, 서점계 등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거대 도서 유통업체인 교보문고가 오프라인 서점에도 책을 공급하는 도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하면서 서점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 서점들은 환영 의사를 보였지만, 기존 도매업체들은 시장 고사를 우려하고 나섰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27일 "현재 일부 운영 중인 도매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지역 서점과의 판매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서점들이 구하지 못하는 책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문고가 현재 정한 서점 공급 마진율은 다른 업계보다 저렴한 5%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도매업체의 공급 마진율은 8% 안팎이다. 서점들은 또 기존 중소 규모 도매업체들에 비해 금전 거래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국내에서 가장 큰 도매업체였던 송인서적은 어음을 돌리다가 막지 못해 2017년 1월 도산했다.

반면 서점 매출 하락으로 침체한 도매업체들에는 교보문고 도매업 확대가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1630개에 이르던 도매업체는 2017년 1599개로 줄었다. 매출 역시 같은 기간 2조 7434억원에서 2조 6307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24일 연 '교보문고 도매 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좌담회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점가 의견이 갈렸다. 이날 당사자인 교보문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도매업체들은 맹비난을 이어 갔다. 황순록 한국출판협동조합 전무는 "독점 후엔 차별적 공급책으로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며 "기존 도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황중운 웅진북센 본부장은 "송인서적 부도 이후 수년째 도매 유통사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입은 손해를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교보까지 뛰어들면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보문고 도매업 진출을 제안한 중소 서점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서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도매업체들이 구하지 못해 서점이 판매하지 못한 책이 30%에 이른다"면서 "도매업체들은 거래처 확보나 경쟁력 있는 공급 마진율 개선엔 관심이 없고, 그 사이 중소 규모 서점은 사막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한 도서 유통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는 "예전 패러다임을 고집하며 밥그릇 싸움만 해선 안 된다.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투명한 구조를 바꾸고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글로벌포토] 국회,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개최

양윤모 | 승인 2019.09.17 16:35

[글로벌경제신문 양윤모 기자]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우상호의원,신덕근의원,소병훈의원,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재)한국출판연구소 주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9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되었다.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행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2019.09.17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행사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7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행사에서 우상호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7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행사에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17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토론회'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17

이날 토론회에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발표와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 이동진 리디북스 본부장,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최세라 예스이십사 본부장,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안찬수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등의 토론자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2019.09.17

박대춘 한국서련 회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역 서점의 생명줄"

입력 2019-03-14 06:00

"지역 서점은 문화의 산실...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이 26일 서울 구로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형서점과 '상생협약' 체결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인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지역과 소상공인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 회장은 오는 14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서점과 '서점 상생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역 서점들이 지난 1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이유가 어떤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강조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위치한 한국서련에서 만난 박 회장은 지역 서점의 생존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그는 최근 화두가 됐던 서점의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신청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인수, 추가 사업 개시·확장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면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법이 있지만, 권장 사항에 지나지 않아요. 수시로 신고했다가 풀어졌다가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고 자유방임주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 서점들은 나 혼자 가슴 치다가 문을 닫는 거죠."

지난 2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대형·온라인 서점들의 오프라인 확장을 막고, 동네 서점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 실제 동네서점은 2007년 3257곳에서 10년 뒤인 2017년에는 2050곳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한국서련을 비롯한 서점 업계는 교보·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 서점 외에도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이 생겨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중고 서점 형식으로 온라인 서점에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고 서점이 아닌 신간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어제 나온 책이 중고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에 체결되는 대형 서점과의 상생협약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박 회장은 "출간된 지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책은 중고 서점에 내놓지 않도록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다행이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용, 어려운 출판계·서점계와의 상생 노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서점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서점업에 몸담고 있는 박 회장은 동네 서점의 쇠퇴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본 인물이기도 하다. 7년째 한국서련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점은 정가제 시행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정가제는 거의 '할인법'이나 다름없었어요. 신간이 반값으로 할인돼 판매되다 보니 영세한 지역 서점은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온라인 서점이 생겨나면서 지역 서점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박리다매'로 책이 판매됐고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책 수요가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출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1조3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오프라인 서점 1802곳의 매출은 1조3842억 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회

교보문고 막는다고 동네 서점 살아날까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서점 신규 출점 제한 "완전도서 정가제 도입,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를"

입력 2019.10.19 / 1210호(p16~18)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입점한 영풍문고. [사진 제공 · 아이파크몰]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박모(38·여) 씨는 다섯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여의도 IFC몰을 자주 찾는다. 주차하기 편하고 식당이 여러 개 있을 뿐 아니라, 대형서점 영풍문고가 입점해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동화책과 교구, 장난감을 구입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집 근처 대형마트도 동화책과 장난감을 팔지만, 여유롭게 앉을 만한 공간이 없고 다소 복잡한 분위기라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기분을 느낄 수 없다. 그는 "아이 책을 사는 김에 요즘 어떤 책이 인기 있는지 두루 살펴보며 내가 읽을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대형서점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형서점 1년에 한 개만 오픈 가능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몰의 반디앤루니스(왼쪽)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딜라이트스퀘어의 교보문고. [박경모 동아일보 기자, 조영철 기자]

그런데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대형서점의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른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등에 속하는 대형서점의 신규 출점이 2024년 10월까지 5년간 제한된다. 중기부는 △연 1개 신규 영업점 출점을 허용하지만 36개월간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를 금지하며 △서점업 사업체를 인수·개사·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영업점을 폐점하고 인근으로 이전하거나 카페 등 타 업종과 융복합한 서점은 허용하기로 했다. 융복합 서점의 서적 매출 비중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서적 판매 면적이 1000㎡ 이하여야 한다.

중기부는 서점업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90%에 달할 뿐 아니라, 최근 대기업 서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근 동네 서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규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대기업 서점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			
구분	대기업 서점 출점 전	출점 후~18개월 미만	출점 18개월 이후
대기업 서점 인근(4km) 평균 중소서점 수(개)	17.85	16.64	14.07
중소서점 월평균 매출(만 원)	310	280	270

주 | 2014년 1월~2019년 6월 대기업 서점 출점지역 모 신용카드 데이터 전수조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실제 중기부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대기업 서점이 새로 문을 연 지역의 동네 서점 현황을 신용카드 데이터로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기업 서점 개점 전 310만 원이던 동네 서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개점 18개월 미만까지 280만 원, 18개월 이후 270만 원으로 10~13% 감소했다(표 참조). 대기업 서점 인근 4km 내 동네 서점 수는 대기업 서점 개점 전 평균 17.85개에서 개점 18개월 이후 14.07개로 줄어들었다. 대형서점 하나에 동네 서점 3개가 사라진 꼴이다.

이번 규제를 받게 된 '대기업 등에 속하는'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서점명 반디앤루니스), 그리고 대교문고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는 신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서점에 진출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단, 중고책을 판매하는 온라인 중고서점은 '고물상'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형서점은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적잖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출판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온라인 구매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대형서점 형편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서점 매출은 200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1조8200억 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소 책을 구입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서 2017년 성인 응답자의 38.5%가 시내 대형서점을, 23.7%가 인터넷 쇼핑몰을 꼽았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서점의 성장세가 더 가팔랐고 젊은 층의 인터넷 구매 선호도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올해 말 발표되는 조사에서는 주요 구입처 응답에서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격차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출 성장세 차이도 크다. 예스24 매출이 2013년 3304억 원에서 2018년 4856억 원으로 5년 새 4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교보문고 매출은 6% 증가(2013년 5351억 원 → 2018년 5684억 원)에 그쳤다. 영풍문고와 서울문고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1352억 원, 826억 원으로 예스24에 한참 밀린다. (주)대교는 8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 위치한 대교문고의 문을 닫으면서 아예 서점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중기부는 대기업 서점이 2013년 63개에서 2018년 105개로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철수한 대교문고를 제외하면 83개(교보문고 36개, 영풍문고 35개, 반디앤루니스 12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1위 교보문고가 그나마 선방하는 이유로도 '온라인 판매'가 꼽힌다. 교보문고의 온라인 매출은 오프라인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미리 결제하고 영업점에 들러 책을 받아가는 '바로드림' 서비스가 꽤 호응이 좋은데, 이것 역시 온라인 매출로 잡힌다.

동네 서점 와서 구입은 모바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알라딘 중고서점(오른쪽)과 동네 서점에서 학습참고서를 살펴보는 여고생. [뉴스1, 박해윤 기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올해 하반기 신규 영업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1개의 신규 출점을 허용한다 해도 실제 출점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들 회사의 입장. 교보문고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영업점의 학습참고서 판매가 18개월간 금지됐던 게 이번 규제에서는 36개월로 늘어난 것이 특히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동네 서점의 주요 매출처가 학습참고서라는 이유로 대기업 신규 영업점의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기간을 종전보다 늘렸는데, 교보문고 역시 학습참고서 매출 비중이 11%로 적잖은 수준이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매장 계약 기간이 보통 5년 단위고,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면 이익을 내기가 난망하다”고 말했다.

대형서점만 없으면 동네 서점은 살아날까. 학습참고서는 팔지 않고 개성 있는 도서 큐레이션(curation·선별 및 전시, 유통)을 내세우는 ‘독립서점’을 2011년부터 시작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땡스박스’의 이기섭 대표는 “대기업 서점이 새로 오픈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손님들은 대형서점과 동네 서점을 함께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라딘 중고서점 신촌점과 교보문고 합정점 오픈 이후 땡스박스 매출이 각각 10%와 40% 감소했는데, 이는 방문 손님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2~3권씩 구매하던 손님이 1권 정도만 구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형서점과 동네 서점은 지향하는 바가 달라, 손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점을 다 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또 다른 독립서점 대표는 “대형서점보다 온라인 서점이 더 큰 경쟁자”라고 했다. “매장에 전시된 책을 두루 둘러보다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 손님이 꽤 많다”는 것. 도서정가제에 따라 책의 최대 할인 폭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15%로 동일하지만, 온라인 서점은 신용카드사와 제휴 등을 통해 사실상 추가 할인을 시행하고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부에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한길서적 대표)은 “온라인 서점의 위협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점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얻는 편익을 고려해 온라인 서점에 대한 규제는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은 대형서점의 증가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서적 도매업체를 살리고, 이들 도매업체 의존도가 큰 군소도시 동네 서점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음사 대표를 지낸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융복합형 서점에 한해 규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 방식을 안내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과 같이 동네 서점의 역량을 키우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기섭 대표는 “프랑스, 일본 등 문화적 성숙도가 높은 국가들은 도서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동네 서점이 더 많아지려면 한국도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동반위-대기업 서점과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식'

문병도 기자 | 승인 2019.03.14 15:23



이상훈(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해권 반디앤루니스 본부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가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점조합연합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가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2월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상생 협약에 따라 3대 대형서점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확정시까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서점업의 상생, 전국의 균등한 독서문화 향유, 안정적인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용, 어려운 출판계·서점계와의 상생 노력 등 한국서련과 대기업 서점이 뜻을 같이 하면서 성사됐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이 첫 번째로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업종들도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의미가 지대하다"라고 밝혔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협약 이후에도 상호 간 협력하여 안정적인 서점, 출판, 독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는 "서점업계가 힘을 합쳐 상생하고 문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는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서점업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병도 기자